

산골법당에 詩·音·茶·墨香 가득

양평 정곡사, 통방축전 눈길
4월 22일 출판기념회 개최

“알아차림~나뉘블라~ 알아차림~알아차림~나뉘블라~ 우주공간 하늘아래 오직 참나 주인공아! 무지에서 깨어나고 앞에 서도 벗어나세!”

한적한 계곡의 작은 산사에서 구성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가건물로 지은 법당 안에서는 80여 명 남짓한 신도들 앞에서 한 스님과 파란 옷을 입은 10여 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4월 22일 양평 정곡사(正谷寺)에서 펼쳐진 통방산 통방축전의 모습이다.

앞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하는 스님은 정곡사 주지 정곡 스님. 수좌로 알려진 스님은 2006년부터 통방산 계곡 안에 정곡사를 짓고 머물며 좌선 틈틈이 통방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수행현장과 자연의 단상을 글로 적었다. 이날 정곡사에 모인 사람들은 평소 스님의 홈페이지(http://jeonggok.org)에 소개된 스님의 사진과 글을 보고 공감한 신도와 지인들이었다.

행사는 스님이 그동안 써온 글을 모은 책 《날 사랑하여요》의 출판기념회를 겸한 산사음악회로 열렸다. 최정희 BBS초대석 진행자(본지 편집이사)의 사회로 문을 연 행사는 책 발정식에 이어 축하 음성공양, 설호정 보살의 시낭송, 저자 사인회, 서예나눔 순으로 개최됐다.

이른 아침부터 내린 비로 삼삼오오 장비를 법당으로 옮겨 열린 축전에서는 ‘정신차려’ ‘오늘은오늘’ ‘알아차림’ 등 스님의 글 다섯 편이 서수일 불교음악 작곡가와 아비라떼 앙상블 불자합창단에 의해 노래로 선보였다. 허름한 사찰에 비가 내려 축전이 무산될 위기에 모인 이들의 얼굴에는 환희심이 가득했다.

정곡 스님은 “책 제목을 《날 사랑하여요》라고 붙인 것은 자신마저 사랑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저마다 조금만 더 자신을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도 사랑하자는 마



정곡사 주지 정곡 스님이 아비라떼 앙상블 불자합창단과 함께 ‘알아차림’ 찬불가를 함께 부르고 있다.

음에서였다”며 “부처님 법이 통방산 자락에 가득하도록 원을 세우고 함께 정진해가자”고 말했다.

강수길 정곡사 신도회장은 “불교를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스님은 인터넷을 보라고 하셨다. 스님을 만나고 때론 인터넷으로 스님의 글을 보며 매일 행복했다”며 “책을 통해 스님과 같은 눈으로 보고, 같은 귀로 듣고, 같은 마음으로 느끼며 행복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경 박영재 선도성찰나눔실천회 지도법사(서강대 교수)는 “《날 사랑하여요》는 스님이 쓴 책이지만 정곡 스님과 인연을 맺어 수행정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모인 책”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정곡 스님은 찬불가 ‘알아차림’에서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그동안 법회로, 또 인터넷으로, 보고 들던 스님의 시를 노래로 함께 불렀다.

서수일 작곡가는 “처음 스님의 시를 접하는 순간 ‘맑다’는 느낌이 들어 노래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서 작곡가는 2년간 틈틈이 스님의 글로 8곡을 만들었고 두달 가량의 마무리 작업을 거쳐 이날 노래를 공개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십시일반 재능을 기부해 행사를 함께 꾸려갔다. 연기자 최

낙천 씨의 시낭송, 미국 에리조나에서 온 <간송 전형필> 저자 이총렬 씨의 인사, KBS그래픽 디자이너 장천 김성태 씨의 서예나눔 등이 이어졌다.

선시와 범어, 음성공양, 사찰음식과 연꽃차, 서예나눔 등이 어우러진 통방축전은 작은산사가 보여준 새로운 문화포교의 현장이었다.

봄을 알리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축전은 끝이 났다. 봄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통방산의 신록은 더욱 짙어 졌다. 잠시 비가 떨어진 산 자락에 법당 안 작은 부처님의 미소가 번졌다. 노덕현 기자 noduc@ryunbul.com

정곡 스님은...
정곡 스님은 18세에 공주 마곡사로 출가해 예산 수덕사에서 헤가 스님을 은사로 득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1984년 봉암사에서 용맹정진결사 수행 후 서암 스님으로부터 ‘망명(亡名)’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정곡(正谷)’으로 아호(雅號)를 정하고 서울 명일동에서 수년간 포교활동으로 펼친 스님은 2006년부터 경기도 양평 통방산 자락에 정곡사(正谷寺)를 짓고 수행정진 해왔다.

외규장각 의궤 광주 나들이

6월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서

145년만에 돌아온 조선왕조 기록인 ‘외규장각 의궤’가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4월 24일~6월 24일 특별전시실을 마련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외규장각 의궤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규장각의궤는 지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된 뒤 지난 2011년에 반환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어 지방에서 최초로 열리는 전시회다.

전시회에는 훈종국장도감의궤, 선의왕후헌전도감의궤 등 외규장각 의궤 51점과 훈종금보 등 조선왕실유물을 포함하여 총 109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크게 ‘조선의

기록문화와 외규장각 의궤’, ‘왕실 중요행사의 세밀한 기록-의궤’, ‘외규장각 의궤가 돌아오기까지’의 3부로 구성된다.

‘조선의 기록문화와 외규장각 의궤’에서는 조선시대 다양한 기록문화와 유교적 통치이념으로 바라본 의궤의 가치·의궤의 변화와 제작방법 등을 살펴보고, ‘왕실 중요행사의 세밀한 기록-의궤’에서는 의궤에 담긴 조선왕실의 중요행사를 살펴볼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석양



석양을 바라본 적이 있는 사람은 석양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인지 안다. 저는 꽃을 바라본 적이 있는 사람은 꽃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인지 안다. 이별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인지 안다. 죽음을 바라본 적이 있는 사람은 삶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인지 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석양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석양을 바라보면, 석양이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 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꽃을 바라보면 꽃이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 안다. 순식간에 이별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안다. 언젠가 미항사 만세루 앞에서 석양을 본적이 있다. <끝>



편집국 사진부 차장

사명대사 가사와 장삼 완형 최초 공개

밀양시립박물관 특별기획전
음악회·특별강연도 펼쳐져



밀양시립박물관은 7월1일까지 ‘호국의 대성, 사명당 송운대사’ 특별기획전을 펼친다.

승병장이자 탁월한 외교가였던 사명 대사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가 마련됐다. 밀양시립박물관은 ‘호국의 대성, 사명당 송운대사’ 특별기획전을 4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연다.

밀양시립박물관은 “사명대사의 유품과 당시 외교활동과 관련된 유물을 통해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특히 사명 대사의 가사와 장삼 완형을 최초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외에도 사명대사의 진영과 발우 등 25점의 다양한 유물이 전시된다”고 밝혔다.

사명대사 가사와 장삼은 1973년도 중요민속자료 제29호로 지정됐다. 가사는 선조임금이 하사한 것으로 황금색 비단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가로 270cm, 세로 80cm이다. 장삼은 흰색 무명으로 만들어 길이 144cm, 폭 55cm, 등술에서 소매끝까지 길이는 143cm이다. 이는 16세말에서 17세기초 승려들의 법복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사명대사의 가사와 장삼은 밀양 표충사에 보관 중이다.

또한 개막식 당일인 4월 29일 저녁 7시 30분부터는 박물관 야

외무대에서 기획전을 기념하는 ‘제8회 밀양시민음악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는 오정해(국악인) 김종환(가수) 개그콘서트 ‘감사합니다’ 팀, 성악가 이윤경 씨 등이 출연한다. 6월 16일 밀양시립박물관 강당에서는 특별강연도 펼쳐진다. 주제는 ▷총사와 사명당 송운대사 관련 문화재 ▷표충사 소장 사명대사 가사와 장삼의 특징 고찰 ▷임진왜란과 그 이후 사명대사의 구국활동과 외교 활약상 등이다. (055)359-5589 정혜숙 기자

바른 불자가 됩시다
대원 문제원 선사님의 바른 불법 이야기

신간! 바른 불자가 됩시다
대원 문제원 선사님의 바른 불법 이야기

요즘 불자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들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대원 문제원 선사 서문 중에서...

누구나 공경한 33가지
대원 문제원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신간! 누구나 공경한 33가지
대원 문제원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지구종말론은 사실입니까?
- 이 험난한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각권 10,000원
☎ 031-534-3373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격·규격원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유크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고추구 12B 인지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불룩 전선 10년
5년 불해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채르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형)
노랑, 진분홍, 백색, 인분홍
▶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명사용) 탈피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인분홍
▶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
▶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 빙생, 탐들이, 각종 행사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